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언제까지 묻기만 할 것인가

학승이 물었다. “밤에는 도솔천에 올라가고 낮에는 염부제에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에 왜 마니보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말하는 거야?”
학승이 다시 한 번 더 물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비바시불이 일찍이 거기에 마음을 머무르고 있었고, 바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그 묘리(妙理)를 얻지 못했다.”

問 夜昇兜率晝降閻浮 其中爲什麼摩尼不現 師云 道什麼 僧再問 師云 毗婆尸佛早留心 直至如今不得妙

대승불교를 높이 천양했던 무착보살(無著菩薩)이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지을 때에 밤에는 도솔천에 올라가 티룩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낮에는 남 염부제인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유가사지론을 집필했다고 하는 설화가 있다.

도솔천은 33개의 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인데, 천국 중에서도 으뜸가는 곳이다. 석가모니불이 사바세계에 오기 전에 머무르던 곳이고, 티룩보살도 미래의 사바세계 부처가 되기 위하여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비바시불은 석가모니불 보다 먼저 성불한 6명의 부처님 중에 최초로 부처님이 된 사람이다. 마니보주는 ‘사람의 성품’을 말한다. 사람의 성품은 신비해 때에 따라

기 다른 색깔을 낸다. 그러나 체(體)는 투명해 정작 자신의 색깔은 나타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무착 보살이라면 남다른게 신통이 자재했으니까, 마니보주가 자기 색을 나타내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선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우주가 생길 때 최초로 성불한 비바시불 때부터 거기에 마음을 머무르고 있었고, 지금 수많은 조사들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묘한 것의 정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옷 속의 보물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싫어해서 한 질문이냐?”
학인이 물었다. “그것은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보물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러다간 옷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이지.”

問 如何是衣中寶 師云 者一問嫌什麼 云者箇是問 如何是寶 師云 與?即衣也失?

<법화경>에 옷 속의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를 찾아갔는데 부자는 가난한 친구가 잠이 든 새에 옷 속에 보물을 넣어놓았다.

시간이 많이 흘러 가난한 사람이 다시 부자 친구를 찾

아갔다. 부자친구는 의아해서 물었다.

“아니, 자네 왜 그러고 다니냐?”
“무슨 말인가, 가난한 자가 이렇게 무슨 수가 있단 말인가?”

“음, 사실 지난번 자네가 잠들었을 때 나는 자네의 옷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네. 나는 때가 되면 자네가 그것으로 부자가 되리라 생각했는데 자네 그 보물을 어떻게 했냐?”

가난한 사람은 그때서야 옷을 뒤져보니 정말 보물이 있었고 알고 보니 자기는 큰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설화의 뜻은 중생은 원래 부처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스승을 만나서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싫어해서 한 질문이냐?”라는 말은 네가 이미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무슨 보물을 찾는다는 반문이다. 그러자, 학인이 곧 알아듣고 그러면 무엇이 보물인가 물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그러다간 옷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이지”라고 대답했다. 그런 질문을 하고 다니면 손해가 더 많다는 말이다.

자기 팔과 다리에 대해서 남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 자기 신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잘 알아야 정상이다. 매순간 보물을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 남에게 묻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니간타들이 탁발 오면 그들에게 보시 해야 합니다

(맛지마 니까야 56)

니간타 나파뱃파라는 종교인이 있었다. 부처님과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활약한 자이나교의 창시자이다. 출가수행자는 ‘무소유’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체수행자가 되었기에, ‘나형외도(裸形外道)’로 폄하되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날란다에 머물고 계셨는데, 가까이에서 니간타 역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듯하다. 니간타의 한 제자가 부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자, 니간타의 무리들은 누군가를 보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인물이 우빨리라는 장자(長者)였다.

당시 종교인들은 이렇게 서로를 찾아다니면서 토론을 걸고 논쟁을 하는 풍조가 있었다. 인도인으로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역시 그의 책 <살아있는 인도>(이경남 역, 정림출판)에서 바로 그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되는 논쟁점은 이랬다. “행동의 잘못이 큰 것에 비하면 생각의 잘못은 하찮은 것이다.” 몸, 입, 그리고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니간타의 가르침에서는 행동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생각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이었다.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은 지금도 길을 갈 때는 발레를 밟아죽이지 않도록,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쓸고 지나간다. 그렇지만 그래도 실수로 밟아죽이는 일이 있을 터이다. 그런 제자가 있다면, 자이나교의 스승 “니간타 나파뱃파는, 그에게 어떤 과보를 말하는가?” 하는 질문을 부처님께서는 던지고 있다.

우빨리의 답 : “니간타 나파뱃파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난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라진다.

뺨질을 박으시는 부처님의 말씀 : “그러면 의도적이란 것은 행동, 말, 생각의 잘못 중 어느 것에 속합니까?”

승부는 이렇게 끝났다. 이러한 토론에 수반되는 사건이 ‘개종(改宗)’이다. 우빨리 역시 그러한 생각을 표명한다.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좋아했으리라, 우리

는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깊이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대와 같이 잘 알려진 사람에게는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일아스님 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137쪽)

그가 더욱 감동한 것은, 바로 이 장면에서였다. 부처님의 ‘열린 마음’을 보았던 것이다. “다른 교단 사람들이 저를 제자로 얻었다면 그들은 ‘장자 우빨리가 우리 교단의 제자가 되었다’고, 온 날란다에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림 · 박구원

우빨리 역시 ‘포기하지 않는 영혼’이었다. 두 번, 세 번, 삼귀의를 거듭한다. 마침내 허락을 하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으신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니간타들에게도 보시를 하라.” 다른 교단의 사람들 같았으면, “보시는 나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보시는 나의 제자들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것이다.

몇일 지나서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온 옛스승 니간타 나파뱃파에게 우빨리는, 6행으로 1연을 이룬 시 9연을 읊는다. 이제 부처님 제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다른 교단의 제자들 물리치고서 / 그대에게 진리를 보이고 싶었으면 / 제자 욕심에서가 아니라네 / 함부로 ‘개종’을 말하지 말라 / 옛스승에게도 보시를 하라시는 / 부처님이 바로 그 분이요 나는 그 제자이네.” 우빨리의 시를 흉내내서 불러본 것인데, 마지막 6행만은 우빨리의 시구 그대로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17>

계정혜 삼학은 곧 팔정도 수행법

삼학과 팔정도

부처님은 40년간의 오랜 세월을 걸쳐 사부대중에게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수행법을 설했다. 이 수행법을 모두 포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계학(戒學)·정학(定學)·혜학(慧學)의 삼학(三學)이다. 여기서 ‘배울 학(學)’은 글자 그대로 배움을 뜻하지만 오늘날 말하는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닌 수행을 배우는 것을 가리킨다.

계·정·혜 삼학의 계학은 몸[身]과 언행[口]과 생각[意]으로 짓는 악행을 막고 선업을 실천토록 하는 덕목이고, 정학은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히 하여 깊은 정신집중 상태인 선정(禪定)에 들도록 하는 덕목이며, 혜학은 평정된 마음에서 분별심을 없애고 사성제 등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수행덕목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따로 무 자르듯 엄격히 나눌 수 없다. 계율을 실천하는 것은 곧 선정에 도움이 되고 선정은 진리를 바로 보는 지혜를 낳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삼학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의 구조를 셋으로 나눈 것을 뜻한다. 생각을 통해 내린 결정은 지킴으로써 의지, 즉 의사적인 측면을 계, 마음의 감정

적인 측면을 정, 올바른 지식적인 측면을 혜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 또한 편의적인 구분으로 계·정·혜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과 같다.

흔히 불교에는 소승과 대승의 구분이 있고, 소승불교의 수행론으로 팔정도가, 대승불교의 수행론으로 육바라밀(六波羅密)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 역시 25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의 해석을 놓고 불교종단이 분열하면서 제각기 교학체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내용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대소승을 구분하여 우열을 가리려는 생각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열 관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대소승의 구분을 잠시 내려놓고 삼학의 큰 틀에서 어떠한 수행론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초기 <아함경(阿含經)>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천 수행법으로 들고 있는 것이 ‘37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이다. 37보리분법은 부처님이 설한 팔만사천 법문 중에 수행에 관련된 내용만을 추려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이라는 뜻이다. 이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을 단순히 나열하면 (1) 사념처(四念處) (2) 사정근(四正勤) (3) 사신족(四神足)

(4) 오근(五根) (5) 오력(五力) (6) 칠각지(七覺支) (7) 팔정도(八正道) 등이 있다. 각 수행법 이름 앞에 붙은 숫자를 모두 합하면 서른일곱이 되고, 이 중에는 팔정도가 포함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일곱 종류, 서른일곱 가지의 수행법은 수행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계통을 이루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 있다. 지면상 이 모든 수행법을 각각 설명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앞서 연재를 통해 소개한 팔정도를 삼학으로 구분하고, 다른 수행법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살펴보는 데 그치도록 하겠다.

불교 내에서 팔정도를 삼학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에 대해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정견·정사유는 혜학에 해당되고, 정어·정업·정명은 계학에 해당되며, 정정진은 삼학전체에 해당된다. 나머지 정념·정정은 정학에 속한다. 이 중에서 사념처는 정념, 사정근은 정정진과 일맥상통하는 수행법으로 이미 앞서 연재한 바 있다. 불교에는 이밖에도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수행체계가 존재하지만 이 수행들은 모두 계·정·혜 삼학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本지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붓 공 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